농촌자원에 대한 다원화된 인식구조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Pluralistic Valuing Structure on Rural Resources

최 수 명* · 황 한 철** · 한 경 수***
Choi, Soo Myung · Hwang, Han Cheol · Han Kyung Soo

Summary

This study, a preliminary one to construction of standardized rural resources evaluation system, aimed at catching the valuing structure of rural and urban residents on rural resources through interview.

The questionnaire employed in our surveys was focussed on; opinion abou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ving in rural areas, usual impression on rural life style, viewpoint on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s and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s, priority item listing for improvement/development of rural village.

Generally, regardless of interviewee's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peaceful and comfortable life in the lovely/clean environment was indicated as a representative advantage of rural life. However, in minor aspects, there were recognizable differences by their living and thinking patterns, so, a deep and systematic study should be progressed to harmonize or integrate the pluralistic valuing trends on rural affairs in future.

The valuing structure on rural resources from this study showed much more varieties according to age-and occupation-groups, while young generation strongly hold self-oriented and ambiguous thinking. Because this trend will grow more deeply and widely in future, the resoruces evaluation system for rural purpos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rational base for decision-making on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I. 서 론

전통적으로 자원은 산업의 원료·재료로 이용되는 천연자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자원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인간이 물질적·정신적 욕망을 만족하고 인류

*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 안성산업대학교
*** 전남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 농촌자원, 다원화, 인식구조, 자원평가, 생활환경, 자연환경

의 사회생활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원천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농촌자원 역시 농촌공간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무형식 가치체로 확대 해석하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도농통합형태의 새로운 행정구역이 탄생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불연속적 공간이 아닌 하나의 결합체로서 상호연계된 형태의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3]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가시간의 이용증대와 도시과밀이 주는 탈도시화적 성향의 심화가 상승작용되어 농촌자원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확산·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농촌지역에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보존·보전되었던 농촌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이용하여 지역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환경보호론자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민과 농촌주민 사이에서 농촌자원에 대한 수요관리가 적절치 못할 경우 이해당사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일본의 경우 새로운 농촌의 지역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단기적인 소득증대사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도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여 농촌정비에 관련된 사업제도 및 계획설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역질서형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도시민들에게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이해시키므로서 오·남개발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5]

농촌환경의 일상적인 관리 이용자는 해당지역 주민이지만 타지역 주민, 특히 도시민 역시 수요자로서 관심이 증대되고 이들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발전에 대한 동반자적 의미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농촌환경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농간의 교류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관리자 또는 공급자(농촌주민)의 의향뿐만 아니라 수요자 또는 소비자(도시민)의 의향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것이다.[4]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제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선험적 연구로 "주민참여방법론"의 기틀모색과 함께 다층적이고 다원화된 자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촌생활 및 자원에 대한 다양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지역·연령·학력·직업별 인식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Ⅱ. 설문조사방법

1. 조사지역

특정지역별로 자원관련 의향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지역적 대표성을 배분, 통합하기 위해 도시·농촌지역으로 대구분한 후, 도시지역은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지역으로, 농촌지역은 도시근교·평야부, 산촌, 어촌지역으로 세분하였는데 선정된 지역과 각각의 설문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
- 대도시지역 : 특별시, 광역시(서울, 부산, 대전, 광주) 각 30매 내외
- 중소도시지역 : 기타 도시지역(목포, 순천, 평택, 천안, 수원) 각 20매 내외

농어촌지역
- 도시근교지역 : 안성, 담양, 장성 각 30매 내외
- 평야지역 : 영암, 보성, 연기 각 30매 내외
- 산촌지역 : 지리산권(구례, 함양, 남원) 각 20매 내외
- 어촌지역 : 해안지역, 도서지역(진도, 완도, 거제) 각 20매 내외

2. 조사방법

조사자에 대해 면접조사 요령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자가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피면접자에게 직접 설문하고 피면접자의 연령, 학력, 직업 등이 가능한 균등 배분되도록 노력하였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2단계로 구분 실시되었는데 예비조사(95.8.23~95.10.5) 실시결과 나타난 문제점(선호순위 매김의 어려움, 설문항목의 일부중복과 과다)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95.10.27~95.11.10)를 실시하였다.

3. 설문조사 내용

가. 일반사항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나. 농촌생활의 선호이유 : 고향등 10개 항목중 택5 또는 기타사유 기록

다. 농촌생활의 기피이유 : 자녀교육문제등 10개 항목중 택5 또는 기타사유 기록

라. 농촌에 대한 느낌 : 고된 농사일등 14개 항목중 택5 또는 기타사유 기록

마. 전통문화자원 및 자연환경의 보존(보전)에 대한 의견 : 오솔길등 15개 항목중 택5 또는 기타사유 기록

바. 농촌의 정비·개발요소에 대한 의견 : 마을안길 및 마을간도로 정비 등 20개 항목중 택5 또는 기타사유 기록

4. 설문집계결과

설문조사표는 총 575매가 수집되었는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249매로서 43.3%이고 농촌지역이 326매로 56.7%이다. 세부지역별로는 농촌자원의 최대수요지인 대도시지역이 26.4%를 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평야지역이 18.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설문에 비교적 적극적인 40대 이하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인 60세 이상은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상이 전체의 2/3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다소 고학력으로 집중된 감이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 고학력화가 두드러져 불가피한 현상이라 사료된다.

직업별로는 농어업이 약 20%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회사원과 학생의 점유비중이 다소 낮은 감이 있다.

Table-1. 설 문 현 황

〈단위 : 매수, ( )는 %〉

구분	지역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도시	농촌	40세 미만	4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이상	농어업	상업등 서비스	공무원	회사원	주부	학생	기타
설문수	249 (43.3)	326 (56.7)	313 (54.4)	262 (45.6)	185 (32.1)	216 (37.6)	174 (30.3)	109 (19.0)	132 (23.0)	117 (20.3)	41 (7.1)	83 (14.4)	47 (8.2)	46 (8.0)

Ⅲ. 농촌생활환경 및 농촌자원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1. 농촌생활 및 환경에 대한 인식

가. 농촌생활 선호도 분석

전체적으로 평온하고 정이 있는 곳(81.2%)→자연적인 곳(75.8%)→고향(72.2%)→아름답고 깨끗한 농촌환경(68.0%)→휴식공간 확보(49.0) 등의 순으로 탈도시적이고 전원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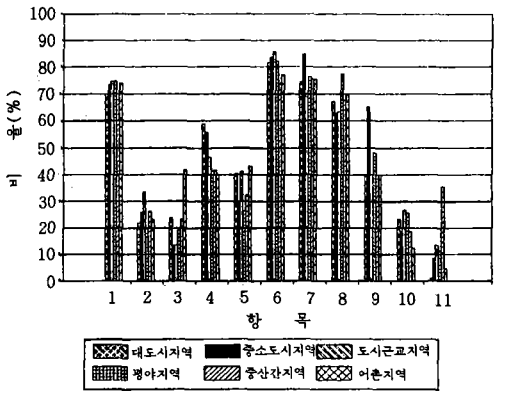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지역에서는 자연적인 곳, 마을공동생활 등에 대한 의견이 두드러졌

고 도시지역에서는 휴식공간의 확보에 대한 의견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선호이유로 들고 있어 농촌환경에 대한 접근도의 차이에 따라 지역간에 어느 정도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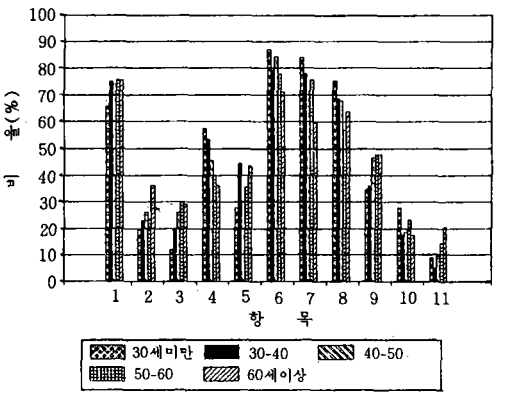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평온하고 정이 있는 곳, 자연적인 곳,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환경, 휴식공간의 확보에 대한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노년층일수록 마을공동생활에 대한 의견이 두드러졌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넓은대지 확보를 통한 휴식공간의 확보와 평온하고 정이 있고 깨끗한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낮을수록 마을공동생활, 농사체험, 할만한 것이 많음 등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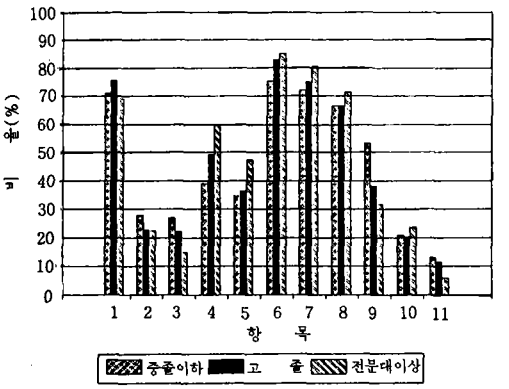
직업별로는 월급 생활자의 경우 평온하고 정이 있는 곳, 자연적인 곳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고 농어업종사자의 경우는 마을공동생활을 중요시 하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 타직종과 구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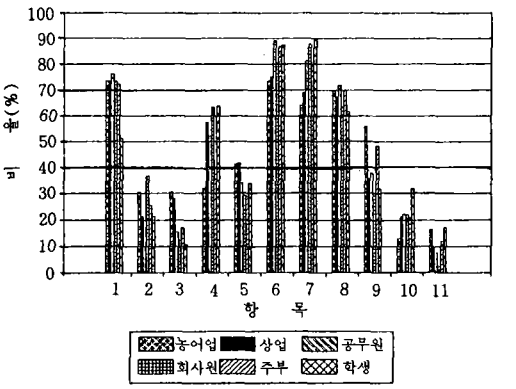
(a) 지역별(x^2=0.000)



(b) 연령별(x^2=0.003)



(c) 학력별(x^2=0.495)



(d) 직업별(x^2=0.076)

1. 고향 2. 농사체험 3. 할만한 것이 많음 4. 휴식공간 확보
5. 넓은대지 확보가능 6. 평온하고 정이 있는 곳 7. 자연적인 곳 8.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환경
9. 마을공동생활 10. 사생활 확보 11.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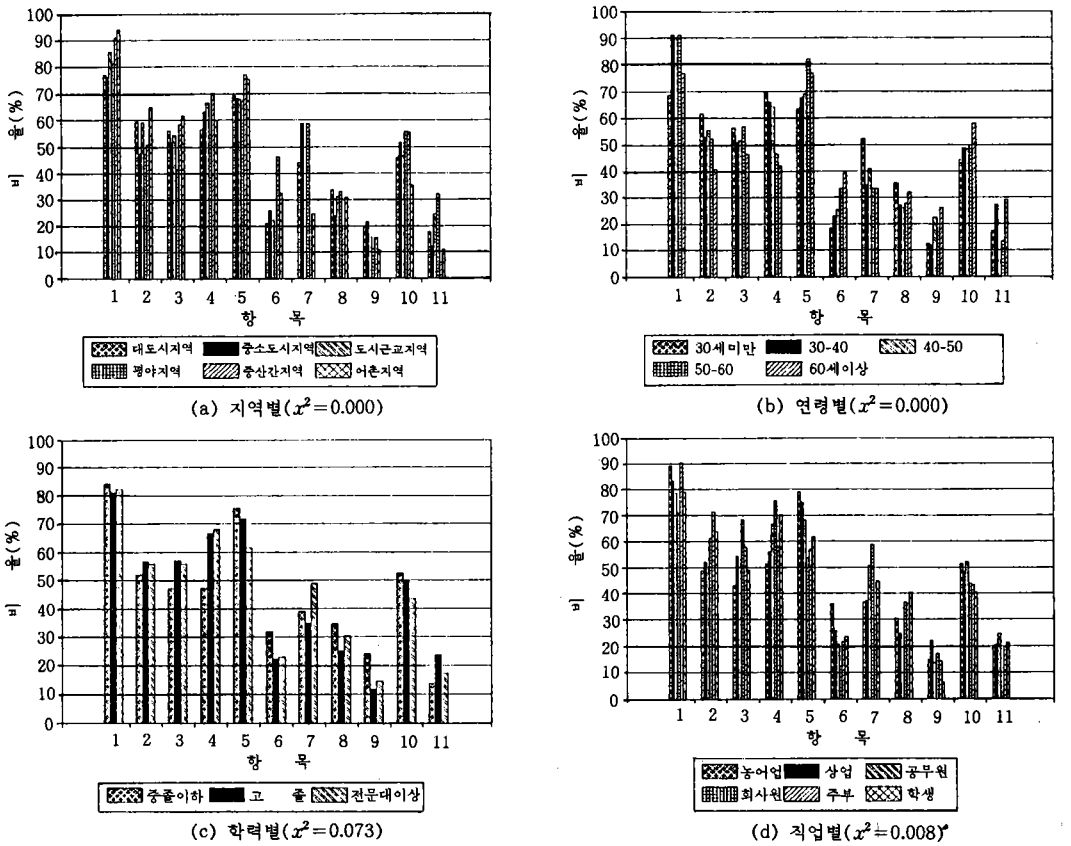
Fig. 1. 농촌생활 선호도

저개발상태에 있는 농촌지역은 도시부에 비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정이 있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리라는 기대심리가 다소나마 표출되었다. 농촌개발은 농촌현실과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결여와 막연한 기대로 초래되었던 농촌주민들의 현실적 소외감을 최소화하면서 노·소가 공존할 수 있는 생활범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특히 개발 의욕과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층의 귀촌(향)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나. 농촌생활 기피이유에 대한 분석

전체적으로 자녀교육문제(82.4%)→낮은소득(69.9%)→문화생활어려움(60.9%)→교통불편(54.6%)→직업선택의 어려움(53.2%)의 순으로 통상적인 농촌생활의 불편사항이 높은 순위이나 문화생활·직업선택의 어려움 등 선진국형 불편사항이 토로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격지역에 속하는 중산간지역과 어촌지역에서는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의견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낮은 소득 역시 70% 이상을



(a) 지역별(x^2=0.000)

(b) 연령별(x^2=0.000)

(c) 학력별(x^2=0.073)

(d) 직업별(x^2=0.008)*

1. 자녀교육문제 2. 교통불편 3. 직업선택의 어려움 4. 문화생활 어려움
5. 낮은소득 6. 소외감 7. 낙후된 생활환경 8. 생활용품 구입불편
9. 악취 10. 힘든농사일 11. 기타

Fig. 2. 농촌생활 기피이유

상회하여 타지역과 구별되고 있다. 또한 중산간지역에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소외감과 문화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도 타지역 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와 평야지역은 낙후된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다.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소득, 힘든 농사일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생활의 어려움과 낙후된 생활환경에 대한 의견을 기피이유로 들고 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낮은 소득과 힘든 농사일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학력일수록 교통불편과 직업선택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농어업종사자와 주부들은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호소가 90%를 넘고 있고 주부들은 교통불편, 회사원은 직업선택의 어려움, 문화생활의 어려움, 낙후된 생활환경, 농어업종사자는 낮은 소득에 대한 의견이 타직종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원격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농어업 종사자들 일수록 힘든 농사일과 낮은 소득때문에 부모입장에서 자식세대에 대한 가업상속을 기피하려는 경향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대중매체와의 접촉이 빈번한 고학력 및 젊은층들의 향도이촌현상이 유발되었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그들의 이해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직업선택의 폭이 넓은 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농촌느낌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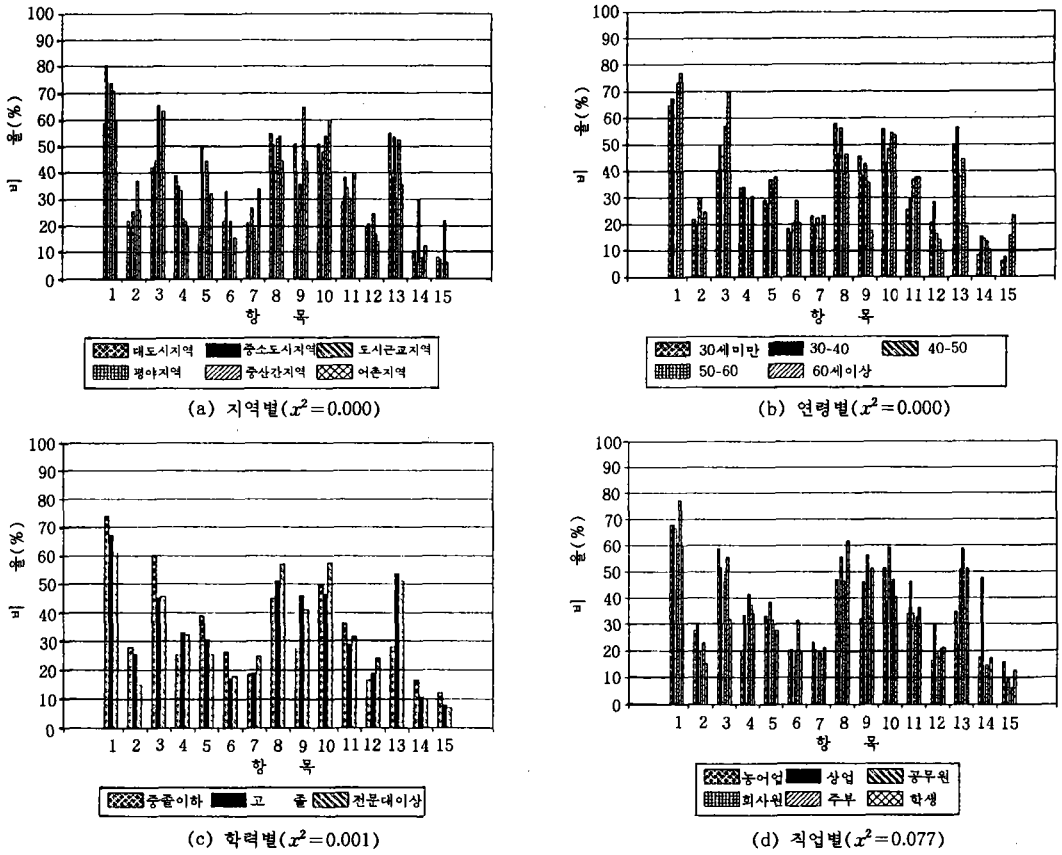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고된 농사일(67.5%)→고향(50.8%)→정이 있는 곳(50.4%)→노인들만 사는 곳(49.7%)→정착하고 싶은 곳(44.7%)순으로 고된 농사와 소외되고 침체된 지역이라는 어두운 이미지와 여유있고 향수어린 살만한 곳이라는 목가적 동경이 교차되고 있는 통상의 농촌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직접적으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중소도시, 도시근교, 평야, 중산간지역에서 고된 농사일을 싫어하는 의견이 70%를 상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원격지역이라 할 수 있는 평야지역과 어촌지역에서는 노인들만 사는 곳이라는 의견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농촌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산간지역에서는 지역여건이 갖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가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고된 농사일과 노인들만 사는 곳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30대에서 정착하고 싶은 곳이라는 의견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저학력일수록 고된 농사일과 노인들만 사는 곳이라는 의견이 높고 고학력일수록 정이 있는 곳, 정착하고 싶은 곳이라는 의견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부들은 고된 농사일에 대한 의견이 75% 이상을 상회하여 도시지향적인 여성들의 경향이 표출되어 있고 상업종사자는 소외된 곳, 여가 및 휴식처란 의견이 타직종에 비해 두드러 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고향을 기반으로 정착하는 경향이 있어 고향지향적인 직업의식이 표출되었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정이 있는 곳이란 의견이 60%를 상회하여 신세대로서 대중매체를 통한 목가적 동경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 사료된다.

농촌에 대한 느낌은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에 따라 고된 농사일과 노인들만 사는 곳이라는 어두운 측면과 정이 있는 곳, 정착하고 싶은 곳 등 목가적 동경이 상존하고 있고, 고학력일수록 농촌생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여 U-turn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며 농촌거주자와 방문자인 도시민 사이의 의견차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 지역별(x^2=0.000)

(b) 연령별(x^2=0.000)

(c) 학력별(x^2=0.001)

(d) 직업별(x^2=0.077)

1. 고된 농사일
2. 경쟁이 없는 곳
3. 노인들만 사는 곳
4. 명절때만 가는 곳
5. 낡은 주택
6. 구식 화장실
7. 개발잠재력이 많은 곳
8. 정이 있는 곳
9. 아름다운 농촌환경
10. 고향
11. 소외된 곳
12. 우루과이 라운드
13. 정착하고 싶은 곳
14. 여가, 휴식처
15. 기타

Fig. 3. 농촌에 대한 느낌

라. 농촌의 정비·개발대상

전체적으로 마을안길·마을간도로(66.1%)→상하수도시설(64.0%)→주택개량(54.1%)→화장실(목욕탕)(48.7%)→농경지정비(37.9%)등의 순으로 소득원개발보다 생활환경의 개선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어촌지역은 마을안길·마을간도로 정비, 생수개발, 자매결연 등의 의견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상하수도정비와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이, 중소도시지역에서는 잔치문화연결주)에 대한 의견이 타지역에 비해 두드러졌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와 비교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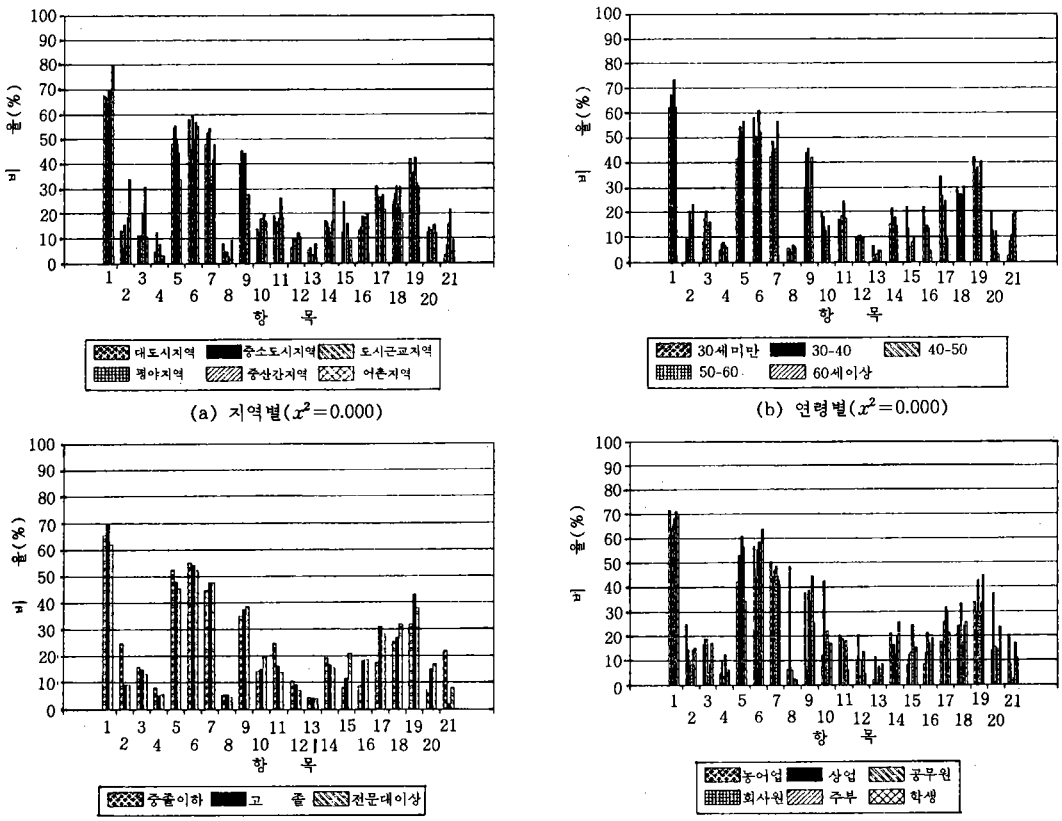
주) 중소도시에서는 가족행사 및 마을(동)공동행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용지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대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농촌지역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향이 갖는 향취도 가질 수 있어 도·농자매결연을 기반으로 한 잔치문화의 연결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측면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젊은층에서는 소득증대에 관심이 높고 고령자일수록 상수도개발, 화장실 정비 등 생활환경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화장실과 주택개량 등 가시적인 것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학력일수록 상하수도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지역사회 기간시설에 대한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상업종사자는 위락단지 조성, 관광농원 조성, 휴양림 개발 등 소득원 개발에 적극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주부들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회사원의 경우 화장실 정비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농어촌은 산업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가운데 편리하고 현대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계획에 의한



(a) 지역별(x^2=0.000)

(b) 연령별(x^2=0.000)

(c) 학력별(x^2=0.000)

(d) 직업별(x^2=0.005)

1. 마을안길, 마을간도로
2. 생수개발
3. 주차시설
4. 농가민박
5. 화장실
6. 주택 개량
7. 상하수시설
8. 위락단지
9. 분뇨처리시설
10. 관광농원조성
11. 산업단지 조성
12. 건강휴양시설
13. 외지인 주택단지
14. 자매결연
15. 장치문화 연결
16. 관광단지
17. 특수농작물
18. 하천정비
19. 농경지 정비
20. 휴양림 개발
21.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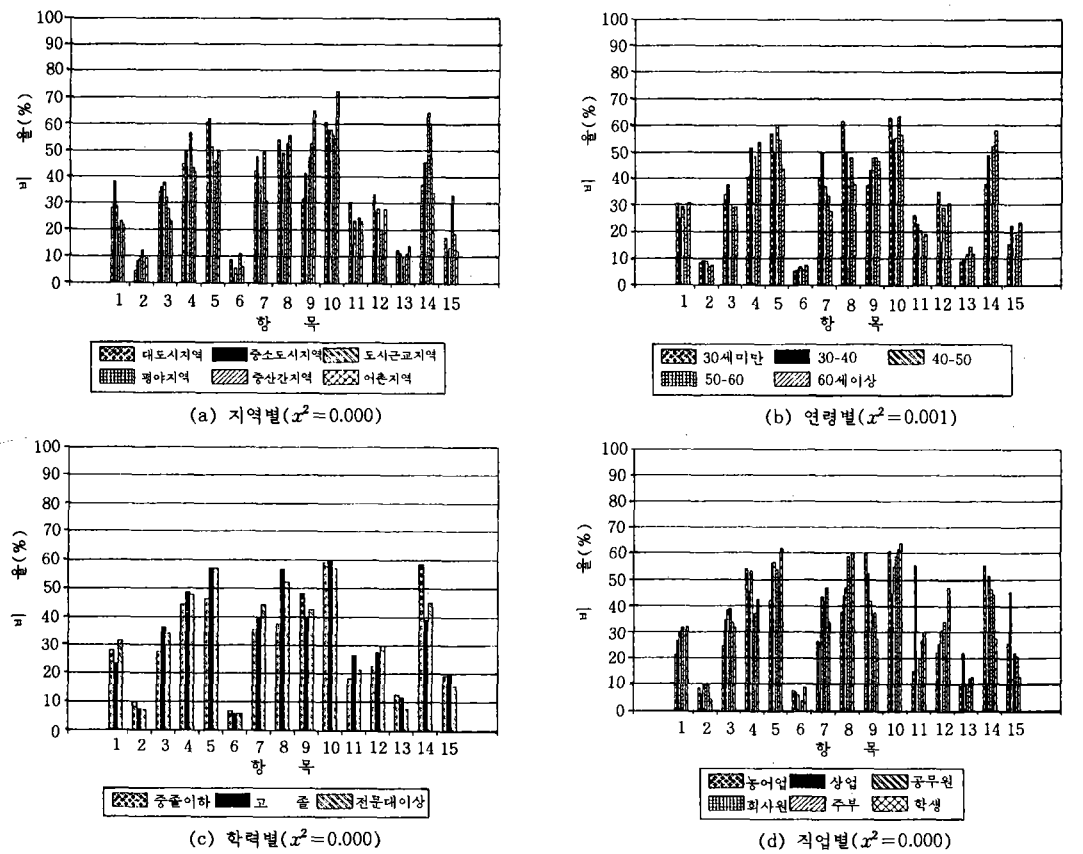
Fig. 4. 농촌의 정비·개발 대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연령·직업에 따른 개발의 사의 상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농촌자원에 대한 인식

전체적으로 전통민속놀이(67.5%)→전래유적지(53.6%)→천연기념물(49.2%)→당산나무·정자(47.0%)→산림(46.8%)등의 순으로 민속·유적·상징물에 대한 선호도가 자연환경의 선호도를 압도하고 있다.

어촌지역은 마을전통행사와 전통민속놀이에 대한 의견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풍어제등의 영향이 뚜렷하게 표출되었다. 평야지역과 중산간지역에서는 당산나무 및 정자에 대한 선호도가 타지역에 비해 높고 도시지역은 전래유적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관광·위락적 측면이, 농촌지역에서는 토속신앙 및 마을 공동체의식에 대한 측면이 강하게 표출



(a) 지역별(x^2=0.000)

(b) 연령별(x^2=0.001)

(c) 학력별(x^2=0.000)

(d) 직업별(x^2=0.000)

1. 오소길
2. 생울타리
3. 전통가옥
4. 산림
5. 전래 유적지
6. 재래식 축사
7. 시냇가
8. 천연기념물
9. 마을 전통행사
10. 전통 민속놀이
11. 전통공예 전수자
12. 토속적인 것
13. 농경지
14. 당산나무, 정자
15. 향교, 사당

Fig. 5. 전통환경 및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의견

되었다.

30세 미만의 청년층에서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선호가 뚜렷히 구별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당산나무 및 정자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30대에서는 전래유적이 50대에서는 시냇가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는 외향적인 측면이 고령자들에게는 놀이공간으로서 어릴적 향수가 깃들여 있는 내향적 측면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지역특이자원에 대한 선호가 높고, 저학력일수록 직접적인 접촉대상을 선호하고 있었다.

상업종사자는 전통공예전수자와 향교 및 사당에 대한 선호가 타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비해 농업종사자는 시냇가와 당산나무 및 정자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전래유적지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 직업별 선호도의 다양성이 확인되고 있다.

전통환경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농업종사자로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직접적인 접촉범위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고학력으로 상대적으로 젊은층일수록 지역특이자원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농촌자원의 관리자와 수혜이용자 사이의 갈등이 예상된다.

I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의 농촌개발은 지역전체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개발이라기 보다는 특정 목적에 한정된 소득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특정목적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오염과 주민반발 및 환경론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및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개발의 폐해를 최소화 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만이 아닌 도시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정보화·다원화시대에서는 농촌에 부존하고 있는 제자원을 효율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간 기능의 적정배분을 통해 농촌개발의 목표라 할 수 있는 도농간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농촌지역의 제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선험적 연구로 "주민참여방법론"의 기틀을 모색해 보고 주민들의 자원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해 도시민과 농촌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분석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의 종사자일수록,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공동체 의식을, 연령이 낮고 고학력자일수록 평온하고 정이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환경에 대한 목가적인 동경을 농촌생활 선호이유로 들고 있다.

2. 농촌생활 기피이유에 있어선 기본적으로 자녀교육문제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들고 있으며, 농어업 종사자, 고령자, 저학력자는 낮은 소득과 힘든 농사일 등 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하고 있으며, 고학력자, 월급생활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직업선택의 어려움, 낙후된 생활환경, 문화생활의 어려움, 교통불편 등 생활·환경측면에서의 불리함을 제시하고 있다.

3. 농촌환경에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에 따라 고된 농사일과 노인들만 사는 곳이라는 어두운 측면과 정이 있는 곳, 정착하고 싶은 곳 등 목가적 동경이 교차하고 있었고, 고학력층의 U-turn의향이 다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농촌의 정비·개발대상은 지역적인 불리여건을 개선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

선하자는 젊은층의 사고와 우선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 노년층의 사고가 뚜렷히 구별되었다.

5. 전통환경 및 자연환경보존에 있어서 도시지역 주민, 고학력, 젊은층의 경우 지역특이자원에 대한 선호가 높아 관광·위락적 측면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농촌주민, 저학력, 노년층일수록 직접적인 접촉대상인 내향적 선호와 토속신앙 및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설문을 통해서 분석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시와 농촌주민 모두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아래서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농촌생활이 갖는 최대의 이점으로 들고 있었다. 하지만,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의 차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진전되어야 겠다.

또한 농촌자원에 대한 인식 역시 각양각색으로 나타났으며 각 연령층과 직종에 따라 이기적이고 막연한 인상에 머무르고 있는 측면이 다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의 인식전환에 필요한 자원평가체계가 하루속히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젊은층에서 이러한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들의 개발의욕을 지역발전의 잠재력으로 승화시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1995년도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에 의한 연구지원과제의 일부결과임

참 고 문 헌

1. 각시군 통계연보, 1994
2.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호남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 현황과 대책,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 최수명, 1994, 도농통합적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기법, 도농통합시대의 농촌개발전략 세미나 보고서, 농어촌진흥공사
4. Hampshire County Councial, 1966, Village Life in Hampshire
5. 國土廳地方振興局, 1989, 新·農村デザイ-快適な農村空間の整備, 創造書房
6. 허명회, 1992, SAS 범주형 데이터 분석, 자유아카데미
7. 이재창·송일서, 1995, SAS 비모수 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8. 장옥배·김순기, 1986, 교양통계학, 일신사

(접수일자 : 1996년 4월 17일)